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4차 제자훈련 박두

3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충현교인들의 영적 재충전의 좋은 기회가 되어 온 제자훈련이 올해에는 3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10차례로 나누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자훈련은 우리 교회가 명실공히 “모범적인 교회”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

망의 인내”를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주관하는 충현제자훈련원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과 찬송가 245장을 주체 성구와 찬송으로 정하였다. 이번 제자훈련에서 이종윤 목사가

특강을 하고, 정기봉 목사가 저녁기도회를, 신평근 목사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며, 김양홍 목사, 안경소 목사, 김찬관 목사가 강의를 맡는다.

훈련 참가 신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소석관 102호에서 접수를 받는다.



「주간충현」100호를 감사하면서

「주간충현」100호를 맞이하여 이 신문을 편집 제작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 여러분께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인생 여로에는 밤과 낮이 있다. 낮이 장구하지 않듯이 밤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낮의 교만과 밤의 비탄을 둘다 삼가야 한다. 모름지기 낮에는 찾아올 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밤에는 새벽을 기다리는 슬기를 지녀야 한다.

「주간충현」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밤과 낮처럼 항상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신앙과 생활의 길동무 역할을 해왔다. 밝고 아름다운 낮의 자랑만이 아니고 음침하게 엮여 있는 밤의 추악함을 거침없이 고발하기도 하고 포근한 엄마의 손길처럼 우리를 격려하는 믿음의 친구 노릇도 해왔다.

흘러가는 긴 역사의 한 시점에 서서 「주간충현」은 민족과 한국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충현인의 생동력 있는 신앙 활동을 유감없이 선포해 줌으로 흠어져 있는 충현 가족의 일체감을 조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형제 교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하는 신문이 된 것을 감사한다.

100호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허실을 지혜롭게 다듬어 새벽의 게으른 잠을 사정 없이 깨우는 영혼의 북소리처럼 「주간충현」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수행할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2. 3

이 중 윤 목사

원로 장로 초청 오찬회 열어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31일 낮 12시에 원로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오찬회를 열었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1년도 목회 방향을 설정한 후, 앞으로 영적 후손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지기 수련회 추가 훈련 20일에 미수료자는 모두 참가해야

9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각 직분별로 나누어 실시했던 청지기 수련회가 1월 30일 남전전도회 임역원, 청지기 수련회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이 수련회에는 모두 4천5백3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율이 제일 좋은 직분은 장로였으며, 그 다음이 권사, 교사일꾼, 여전도회, 임역원 순이고, 남전도회 임역원

들의 참여가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현의 직분자들은 이 청지기 수련회를 통하여, 자기가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아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교회는 이번 청지기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한 직분자들을 위하여 2월 20일 수요일 Ⅱ부 예배 후에 추가 수련회를 갖기로 하였다.

교회학교 부서별 연구 수업

유치부는 1월 27일, 초등1부·청년1부는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의 발전과 분반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교회학교별로 연구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유치부는 지난 주일 1부, Ⅱ부 예배가 끝난 뒤 12시 30분부터 열매 1반 김순이 선생님을 초청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여 연구 수업을 진행했다.

이 연구 수업은 신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한 해 동안 어떻게 분반 공부를 진행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었으며, 선정된 모범반의 수



업을 통하여 다양한 교수 방법을 포착하여 더 효과적인 분반 공부를 할 수 있게 했다.

다음 주에는 초등1부와 청년1부에서도 연구 수업을 가질 예정이다.

91년도

첫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1월 30일 수요일 1부, Ⅱ부 예배 시간에 91년도 첫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이 세례식에서 73명이 세례를, 12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또 134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48명이 입교를, 4명이 개종을 하였다.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위한 헌금 전달



작년 7월부터 전개하였던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을 위한 헌금을 집계한 결과, 성경만 2천 권에 상당하는 3천5백6십7만4천9백3십원이 거두어졌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지난 31일 이 헌금을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본부에 전달하였다.

회계 실무자 교육

5일, 6일에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의 남녀 전도회 협의회 및 지회, 교회학교 및 면려회 찬양대의 회계와 부회계 등 회계 실무자들에 대한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교육 대상자들은 5일 저녁 7시나 6일 오후 1시 30분 중 편리한 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으리라 된다. 이 교육은 베다니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충현올림픽 준비위원회 본격 가동

자원 봉사자 모집

충현올림픽 준비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지난 1월 27일 첫 모임을 갖고 제3회 충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이날 올림픽준비위원회는 전문직 자원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번 올림픽이 충현인

그랜의 개발과 함께 보다 유익한 종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다.

전문직 자원 봉사자란 체육 경기인 및 종사자 각급 학교 체육 교사, 사회 체육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등이다. 자원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24일까지 사무국(소석관 102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2부 주관

91년도 춘계 특별 강연회

1. 주제 : “산상보훈의 현대적 의미”
2. 강사 : 정훈택 교수(충신대 신약학)
3. 대상 : 충현의 모든 교인
4. 일시 : 91. 2. 3 오후 1시
5. 장소 : 소석관 602호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믿으면 보리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38~44)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크라이막스를 어디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의 크라이막스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가시기 일주일 전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

먼저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요2:1~11)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기원이 되시고 기쁨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관원의 병든 아들을 가나에서 고치셨습니다(요4:46~54).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천지만물과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의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요5:2~16)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요6:1~14)은 육신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시며 자연의 주인이심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요9:1~41)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소경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부활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믿으면 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요11:40)

유대인들은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지 아니하고, 굴을 파서 시체를 그곳에 안치한 후, 돌을 굴러 무덤

을 막습니다. 이런 관습에 따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자 그를 굴무덤에 안치하고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도하시자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그때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요11:39~40).

사람들은 “믿으면 보리라”는 말씀보다 “백문이 불여일견”(百問不如一見)이라는 경구를 더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뒤집힐 만한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돌을 제거해야

“믿으면 본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그 다음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실성이 결여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루지 못할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신23:19).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2. 완전히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돌을 옮기면 악취가 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해란 흔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사무적인 만남에서 생기게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본문 4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서 하신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말씀은 보통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고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죽은 자를 부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실락원(失樂園)했던 인간들을 복락원(復樂園)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어 구원으로 이끄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 우리의 할 일

모든 기사와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1:39). 여기서의 “돌”이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막고 있는 무지의 돌, 과오의 돌, 편견의 돌, 불신앙의 돌, 저주의 돌, 절망의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돌들을 옮겨 놓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풀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1:44). 여기서의 “수족을 동인 배”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을 묶고 있는 의심의 수의, 공포의 수의, 구습의 수의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잘못된 수의를 벗기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고, 수의를 벗기는 일을 성도와 교회가 쉬임 없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있는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써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옮겨 놓았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는 이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완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

■ 지령100호 기념 특집

밖에서 본 충현교회



복음의 웅단 폭격을 가하는 교회

임한창 기자

(국민일보)

걸프전쟁은 최첨단무기의 시험장으로서 하루에 최소한 5~10억달러를 포연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느부갓네살왕을 자처하던 후세인은 이번 전쟁을 지하드(聖戰)라 부르며 이스라엘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느부갓네살은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바벨론(지금의 이라크 인근지역)으로 잡아왔다. 그러나 그는 정신병을 일으켜 미친 소처럼 날뛰다가 마흔 셋에 세상을 떠났다. 올해 선셋인 사담 후세인은 느부갓네살보다는 최소한 10년은 더 장수한 셈이지만 둘다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대의 시온주의와 아랍의 민족주의는 지난 6천년 동안 끊임없이 침략과 약탈을 계속해오고 있다. 다국적군은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를 향해 빔발치는 미사일공격을 퍼부었으나 후세인은 아랍권의 결속을 부르짖으며 서서히 충부리를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

걸프전쟁의 흐름과 충현교회가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일부 학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거의 0시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세계 선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충현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로서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라는 이름의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작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충현교회에서 열렸던 '90아시아선교대회'는 50개국에서 천3백 여명이 참석해 세계 선교의 신기원을 마련했다.

이 선교대회가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새벽 5시에 실시된 '속샤도행전운

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다. 한국 교회의 독창적 장점으로 자리 잡은 새벽기도운동을 지구촌 교회에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립 38주년을 맞은 충현교회는 이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30대 장년처럼 모든 면에서 의욕적이고 창조적인 선교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이종윤 목사님에 의해 시작된 국제 선교와 교회 갱신을 위한 한국연구회(KIMCHI)의 세미나는 세계 목회자와 신학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치'란 말에서도 한국적 이미지를 물씬 풍기고 있다. 김치 세미나에는 동구권 목회자 40명이 초청돼 91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되는 '그리스도를 향한 동구권회의'의 준비 모임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비롯 미래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북방선교기도회 등 열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국내 평신도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인 이종윤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기자가 90년 한 해 동안 취재 관계로 가장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 바로 충현교회였다. 한국 교회의 교리적 약점으로 부각되던 개교회주의를 훌훌 벗어던지고 사회와 한국 교회 속에 과감하게 뛰어든 충현교회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충현교회만큼 국내 및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줄 교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최첨단선교기술을 총동원, 지구촌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웅단 폭격을 기대한다.

만형된 교회로서의 사표가 되는 교회

송기태 차장
(두란노서원 편집부)

요즘 한국에서 가장 욕을 많이 얻어 먹는다(?) 그룹이 정치인과 교회가 아닌가 한다. 어느 곳이나 할 것 없이 정치인과 교회에 대한 개탄의 소리가 성난 파도 같다. 철저한 집단 이기주의와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룹이 바로 이들이라고 노련한 관객들은 펜 끝을 쪼아대고 있다.

더구나 높은 도덕성이 필요 충분조건인 이들 그룹이 어지간해서는 쏟아지는 비난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어찌하면 숙명적일지도 모른다.

특히 교회—그 가운데서도 대형 교회—를 향한 사회의 눈길은 웬지 준 것 없이 미운 표정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비난을 비켜설 만한 교회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교회일까, 그러한 비난을 비켜설 만한 교회가 많이 있다면 한국 기독교의 장래는 과연 어둡지 않지 않은가라고 자문해 보면서 눈을 씻고 찾아보지만 불행히 우리는 "여기 이 교회가 우리 시대에 사표가 될 만한 교회요."라고 대답할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요,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교회, 인간이 머리된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대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문과 우리의 대망에 가장 근접한 교회로 충현교회를 꼽을 수 있는가? 필자가 충현교회에서 가장 신선하게 받은 인상은 밀알선교단을 위한 공간 제공과 더불어 장애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였다. 자칫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며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의 장으로서 교회 공간이 활용되고 또한 충현 성도들이 돕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만형된 교회"로서의 사표가 된다고 믿는다.

두번째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김치(KIMCHI)세미나"등을 보면서 충현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귀한 기회였다. 이는 또한 대형 교회가 갖는 장점들을 충분히 설득해 준 영혼의 잔치였다고 본다.

세번째는 자체 내에서 활발히 발행되는 각종 설교집과 각종 책자를 접하면서 한국 교회에 또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자 한 자 한 자에서, 문장 한 줄 한 줄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한국 땅에 깊이 스며들 때에 역할은 심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평신도들이 기독교 시각에서 쓴 다양한 글들(이를테면 기독교세계관, 기독교경제관, 기독교사회관, 기독교문화관 등)도 개발해 주었으면 한다.

이제까지 지면사정으로 극히 일부만 살펴본 충현교회의 사역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볼 때 충현교회의 그것이 다른 교회의 그것보다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약한 자 위로하는 교회

김성보 집사
(영락교회 홍보 담당)

크게 기여하도록 할 책임을 충현교회는 감당하고 있다. 충현교회 교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주간충현을 통해 충분히 보여진다.

그러나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사람의 수효는 많아지고, 경제적인 형편은 부유해져서 비대증이 되파르고, 쉽게 타래해져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 하며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러므로 황금만능주의로 타락해 가는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소유한 풍요로움을 바로 사용하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신문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화려한 교회, 사치스러운 교회, 성도끼리만 먹고 마시는 교회는 쓸모없는 허약한 교회로 변하고 만다. 비록 교회가 크고 비대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자주 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허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깊이 생각게 하는 교회 신문이 되어야 하겠다.

주간충현을 받아 보면서 교회의 선전홍보물로서 또는 선교의 기능으로서 균형있게 꾸며지고 있는 것에 감탄했다. 그리고 한 면 한 면 읽어가는 중에 세상 신문에서 맛볼 수 없는 말씀에 감동되고 충현교회의 생동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어 좋다. 특히 "목회자단신"란에 고정적으로 게재되는 "편운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는 간결하면서도 뜻깊은 감동을 주며 용기를 주는 메시지이다.

교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들이 획일적이거나 형식에 매여 상투적인데 비해 주간충현은 활숨에 충실하고 작은 지면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개척하는 노력과 변화를 시도하는 글들이 실려 교회가 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나는 종탑이 유난히 우뚝한 충현교회의 건물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 충현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퍼 부으신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교회가 아닌가 한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이 축복이 흘러서 연약한 다른 교회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현장에서

70인전도대 대원 모집

70인 전도대를 다시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소개 받아본 적이 없으며, 혹은 예전에 신앙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훈련된 이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충현교회 모든 성도는 단계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된 자만이 바르고 능력 있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인 전도대의 기본 전략

1. 70인 전도대의 활동을 통해서 결실된 영혼들이 이 지역의 다락방에 연결되어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2. 믿지 않는 불신가정 및 믿다가 낙심한 가정을 전도의 대상으로 한다.
3. 구체적인 기본전략은 모집, 훈련, 제자화, 파송, 전도에 그 기초를 둔다.
4. 행동강령 : 절대 믿음·절대 헌신
절대 훈련·절대 행동

훈련대상

1. 충현교회 성도를 우선으로 한 전 그리스도인
2. 20세 이상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
3. 교구 목사의 추천을 받은 세례 교인
4. 전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남녀

훈련방법

훈련기간 : 91. 3. 4 ~ 6. 29(4개월)
 훈련시간 : 목요일 오후 7:30 ~ 9:30
 토요일 오후 3:00 ~ 5:00
 지원마감 : 2. 17(주일)
 면 접 : 2. 23(토)
 훈련비 : 만 원

■ 심방 지침

심방은 교회와 성도간의 격려와 교제의 수단

심방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권고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심을 뜻한다.

1. 심방의 목적

첫째, 심방은 성도와 그 가정의 형편을 파악해서 주님의 양을 잘 먹이기 위한 것이다(요 21:15). 따라서 심방은 의사의 청진기 진찰법과 흡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심방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영적 도움을 위한 것이다. 즉 신앙 생활을 돌보아 주고(행 7:23), 믿음이 나약한 학생과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위로, 격려, 권면하고 신앙심을 양양할 수 있다(행 11:23, 14:22). 또한 심방은 초신자나 장기 결석자에게 신앙 훈련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기회가 된다(마 25:36).

셋째, 심방은 불신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이다.

넷째, 심방은 개인의 능력과 형편을 살피 인재발굴과 개발을 위한 자료가 된다.

2. 심방의 자세

첫째,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과 찬송가를 휴대한다.

둘째, 어린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을 품는다(눅 15:3~7).

셋째, 섬기는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피심방자와 그 가정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 한다(요 3:

2).

다섯째, 피심방자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언제나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태도가 필요하며 복장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3. 심방을 위한 준비

첫째, 기도로 준비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전에 준비한다.

4. 심방의 실제 요령

첫째, 피심방자와 사전에 심방 일시를 약속한다.

둘째, 심방 카드나 학생 생활 기록카드를 참고하여 피심방자의 가정 형편을 살핀 후, 적당한 성구와 찬송, 그리고 말씀을 미리 준비한다.

셋째, 피심방자 가족들의 부모에게 심방 목적을 알리고 안내를 받는다.

넷째, 방안으로 안내되면 가능한 한 출입문을 마주보고 식구들을 불러 함께 예배를 드린다.

다섯째, 심방 예배는 묵도→찬송→말씀→기도→주기도문 순으로 드린다. 말씀은 권면, 위로, 격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는 그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비는 내용으로 전한다.

여섯째, 예배가 끝난 후, 심방 조사서에 기록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한다.

일곱째, 대화는 가정 생활, 학교 생활, 학생의 문제점, 특기,

취미 등 기타 피심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여덟째, 대화의 진전에 따라 적당한 시간 동안 대화한 후 헤어져야 한다.

아홉째, 심방을 마치고 나올 때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공손히,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한다.

열번째, 심방 시간을 잘 선택한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 시간, 취침 시간 같은 실례되는 시간은 피하도록 한다.).

5. 심방 결과 처리

첫째, 교회학교의 경우

심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일마다 학년 과장에게 제출한다.

학생 생활기록카드에는 반드시 심방 내용을 간략히 기록한다(잘못 기재된 사항도 수정한다. 예: 주소, 약도 등)

교사의 판단으로 출석 불가능한 자(이사, 타교회 출석, 본인과 부모의 강한 반대)는 학년 과장에게 제명 신청서를 제출한다.

둘째, 교구의 경우

교구 담당 구역자들이 새신자나 이사 심방 및 기타 심방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교회에 보고된다.

심방을 한 교구 일꾼들은 주일 교구 모임 시간에 다락방 모임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 주일 교회 출석 여부와 심방 예배 장소를 기록한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을 위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재앙 때 나타났습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시어 이스라엘만 재앙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셋째, 초태생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넷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 원수는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공품을 보며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 답

1.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2. 바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압제했습니까(출 1장)?
3. 이 속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4. 출애굽기 3장 8절의 약속은 언제의 약속입니까(창 13:15~18)?

토 의

1.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2. 지난 주간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결심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3.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 도

1.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2. 2월 22일, 23일에 있을 미래지도자를 위한 복음화대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 영혼과 육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중동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합시다.



제 6 과 언약의 백성이 구출받음

본문 : 출 3:1~12

찬송 : 193, 210

본문연구

출애굽기는 창세기 없이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창세기에 주어진 약속에 기초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창 15:13, 14).

1. 출애굽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주하려고 했을 때, 그의 식구는 70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환대를 받게 되었고, 거주지로서 좋은 고센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환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노예와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출 1:8).

2. 이스라엘의 속박은 우리의 죄를 보여 줍니다.

이 속박은 단순히 정치적 식민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악의 종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는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영구적인 노예로 그들을 종 삼으려 했습니다. 종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출 3:1~3).

3. 출애굽은 우리의 구속(죄사함)을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이 종된 데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해방되는